

지역 소식통

고창군, 찾아가는 고창 관광 홍보 활동 펼쳐

고창군이 관내 주요 의식업, 숙박업,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창 관광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날 고창군청 관광산업과장을 비롯한 직원 일동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고창읍 주요 모범업소, 착한가 격업소, 숙박업소, 터미널 등을 직접 방문하여 홍보물을 배부하며 고창군 축제 일정과 유네스코 7가지 보물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청년정책협, 변산 마실길 환경정화 플로깅

부안군 청년정책협의회(위원장 이종원) 회원들이 최근 관광지 환경정화를 위해 변산 마실길 3코스 일대에서 플로깅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플로깅은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가볍게 걸거나 뛰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쓰레기봉투와 집게만 있다면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운동이다. 주말과 휴일을 맞아 관광객이 부쩍 늘어난 변산 마실길 3코스(성천~격포항)를 찾은 협의회 회원들은 일대를 걸으며 쓰레기 줍기 활동을 전개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향토자원 보호수 노거수 정비사업 나서

정읍시는 천혜의 향토자원인 보호수와 노거수의 장기적 보전 관리를 위해 사업비 1억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나무의 죽은 가지와 무성한 가지 등을 치고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토양개량, 콘크리트 제거, 외과수술 등을 시행해 하는 등 정비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5월 초에는 보호수 68본을 대상으로 방제차량을 활용해 병해충방제를 완료했고, 각 마을 노거수(정자나무)도 순차적으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수요조사

정읍시, 6월 7일까지 선착순 접수... 태양광 150만원, 태양열 200만원, 지열 390만원 자부담

정읍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공모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자가소비용인 주택용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의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도 대상 지역은 신대인읍, 태인면, 웅동면, 칠보면, 산내면, 장명동, 시가동, 초산동, 연지동 등 9개 지역이다.

신청 기간 오는 6월 7일까지로 선착순 마감 된다. 신청자격은 주택소유자로 △사업신청서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태양광(3kW) 150만원, 태양열(600L) 200만원, 지열(17.5kW) 390만원의 자부담금을 확정했다. 시는 앞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업체 등으로 구성된 6개 기업과 컨소시엄을 마쳤으며, 이번 수요조사를 토대로 내달 중순경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공모 선정 결과는 오는 10~11월경 발표 예정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공모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정읍시청 제공>

이학수 시장은 “최근 전기세 등 물가가 높아져 비용 절감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내년에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공모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공모사업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 23개

읍면동에서 1177개의 에너지원을 보급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다.

올해는 6개 동(수성, 장명, 내장상, 시가, 초산, 연지) 일원에 총사업비 21억9,000만원 규모로 총 280개소(태양광 263개소, 태양열 9개소, 지열 8개소)의 현장 조사를 마쳤고, 11월까지 시공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달이네’ 김현아 대표 농식품부장관상 수상

부안 신활력플러스추진단, 국제요리&제과경연서

부안군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최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국제 요리&제과 경연대회’에서 액션그룹 ‘달이네’ 김현아 대표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제16회를 맞는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는 세계적 수준의 식음 조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고의 요리대회이다.

(사)한국조리협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기관과 민간기관이 후원하는 명망있는 대회로 액션그룹 ‘달이네’의 수상소식은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한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조직(액션그룹)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활용가치를 극대화시켜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농촌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진단은 이 일환으로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달이네’를 포함해 총 33개의 액션그룹을 발굴·육성 지원,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힘쓰고 있다.

부안군 추진단 정우중 사무국장은 “우리 부안의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활용한 디저트가 전국대회에서 인정 받은 뜻 깊은 성과라고 생각되며, 부안 액션그룹의 생산품을 전국에서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고창읍-부안군 축산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지역 간 상생 도모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과 부안군 축산과 직원들은 지난 20일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지역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고향사랑 상호기부

에 동참했다. 이길수 고창읍장을 비롯한 고창읍 행정복지센터와 부안군 축산과 소속 공무원 각 21명씩 고향사랑 상호 기부로 서로의 지자체에 210만원씩을 기부하며 지역 상생 발전을 응원했다.

이길수 고창읍장은 “양 지자체 간 우호 증진과 협력 강화를 위한 든든한 토대가 마련된 것 같아 앞으로도 양 지자체가 더욱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상호기부에 동참해 준 직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액의 30%이내 담례품과 10만 원까지는 전액(10만원 초과시 초과분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으로 온라인 기부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하면 지역을 사랑하는 군민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길수 고창읍장을 비롯한 고창읍 행정복지센터와 부안군 축산과 소속 공무원 각 21명씩 고향사랑 상호 기부로 서로의 지자체에 210만원씩을 기부했다.

정읍시, 유관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합동 점검

정읍시는 지난 7일부터 2주간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장애인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소방분야 안전점검을 위해 경찰서·소방서와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보조금 운영 실태 △중상사 관리 △예산·회계 집행 △후원금(품)관리 △인권침해 실태 △(성)폭력·범죄 실태 △안전점검(소방분야 집중점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 및 시정 조치했고, 위법 부당한 사안

은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 절차를 안내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수 지적된 예산·회계 분야는 ‘지방보조사업 운영지침’ 교육을 통해 시·시 운영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시설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적정성 도모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시설에서는 점검내용을 항상 유의해 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여성새로일하기 원예심리상담사 개강식

정읍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주거지 지원형) 여성 새로 일하기 프로그램 ‘원예심리상담사 과정’ 개강식을 21일 청춘활력소에서 진행했다.

이번 과정에는 총 20명이 참여해 21일부터 7월 5일까지 원예심리 상담사 이론과 실습과정으로 진행된다.

원예심리상담사 과정은 식물관리법, 식물기르기, 꽃장식 등 식물을 이용한

원예활동으로 심리·행동적 문제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해결함으로써 심신치유와 사회정서적 성장을 돕는 상담기법에 대한 학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과정을 70% 이상 이수자는 원예 심리 상담 2급 자격 점정에 응시할 수 있으며, 60점 이상 득점 시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Advertisement for '112' reporting crimes. It features a woman covering her face in distress and text that says '착한신고 112' and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It lists benefits for reporting crimes, such as protection for the reporter and support for the victim.